

## [ 종합·해설 ]

광주시 남구 '노인요양시설' 갈등 장기화

## 주민들 "주거밀집 지역에 왜...이전해야"

## 남구청 "영안실 설치안해...이전은 불가"

"타협 없다" "공사 강행"...팽팽한 대치

## 남구 노인수발보험 시범시행 차질

지난 8월부터 70여일간 계속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M아파트 주민들과 '인애법인' 구청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양측의 갈등은 노인복지요양시설의 위치·내부 시설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양측간에는 현재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남구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범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진행 과정=마찰의 시작은 지난 8월 21일, 주민들이 소음·먼지 피해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남구 노인복지요양시설 공사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같은 달 24일 남구청이 건축과 주관으로 공개민원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거밀집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과 영안실 등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갈등은 촉발됐다. 공사가 1차 중단된 것은 8월 28일.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이다.

주민들은 9월 5일 '인애동산' 앞 도

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는 주민 20여명이 황일봉 남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에 황 청장은 다시 공사 강행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같은 몸싸움·고소·고발 등 법정 대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자치위원회 토론과 시의원 및 구의원의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고, 지난 9월 27일 남구의회가 '인애동산 노인요양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인용)를 구성해 수습에 나섰지만 불신의 골은 좁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신축 현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 6일 현재 45일째 농성을 진행중이다.

◇ 쟁점=노인요양원의 '위치'가 갈등의 주원인이다. 주민들은 "주거밀집 지역에 노인요양원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청은 "노인인구 증가로, 집 가까이 있는 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라 고 설득 중이다.

또 하나 쟁점이 됐던 노인요양원 내 '영안실'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지난 9월 영안실 부분을 삭제하는

설계 변경을 하고, 지난달 말 이를 공증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은 "무의탁 노인이 대다수라 설립 후, 영안실을 설계변경해 다시 설치할 것"이라며 구청 측의 제안을 믿지 않고 있다.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하지 않았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그러나 "노인요양 시설이 기준 '인애동산' 부지에 추가로 들어오고, 규모가 교통·환경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 장기화 조짐=주민들은 "노인요양원을 이전·신축하지 않는 이상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청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회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이후 4차례의 회의를 갖고 ▲요양원을 아파트와 거리를 두고 이격·離開) 건축하는 방안 ▲법인에 이전 신축이 가능한 부지 매입 등을 제안 했다.

남구청과 '인애동산' 관계자는 "주거밀집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요양원 건물 재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 ■ 노인요양원 민원 전행 상황

년월일	민원진행상황
2006. 8. 21	주민들이 소음·먼지 피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 요구
2006. 9. 6	주민 1500여명 현장에서 장기 농성 시공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주민대표 등 50여명을 금수강탈사서에 진정서 제출
2006. 9. 23	철야 농성 시작 2차 공사 중지(·현재)
2006. 9. 25	시공사 주민 다수 고발, 불법감금 및 업무방해죄
2006. 9. 26	공사장인부 및 경찰방역동원 공사장 진입 시도 진압과 함께 주민 이모씨 탈진·병원 후송
2006. 9. 27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2006. 9. 29	불법위·요양원·신축공사 일시종지하도록 의상명으로 군고안 발송 결의
2006. 10. 17	매인 제의
2006. 10. 19	남부경찰, 서장 지휘하에 여경 등 투입 시위장을 압수도중 몸싸움
2006. 10. 22	제4회 흥인왕 마리온 대통령장암구시위 풀인 자정에서 철일봉 청진과 몸싸움
2006. 10. 23	주민대표 원모씨 1차 연행
2006. 11. 3	주민대표 원모씨 2차 연행

이전은 겸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까지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경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인애동산' 전경. 점선안이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노인전문요양원 부지이고, 부지 바로 옆 오른쪽 건물이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M아파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당 전남 의원들 "고건 신당 참여 안한다"

지난 2일 고건 전 국무총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은 한결같이 "고건 신당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결국 민주당과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적으로 고건 신당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희갑(무안·신안) 대표는 지난 3일 "고건 신당은 민주당 2진들이 구성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민주당 의원 가운데 고건 신당으로 갈 사람은 없으며 간다면 정치적으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인 최인기(나주·화순) 의원은 "정계개

편 과정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으며 개인적으로 고건 신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상열(목포) 의원은 "고건 신당의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하며 개인적 참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건 전 총리와 밀접한 관계인 이나연(영광·함평), 신종식(고흥·보성) 의원도 "고건 신당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서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도자적으로 고건 신당에 합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차일병(해남·진도) 의원은 "고건 신당 참여 여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李 "대세 기울었다" 박 "승부 이제부터"

## 박근혜-이명박 대선 지지율 물밀 신경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지를 놓고 물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추석 이후 이 전 시장이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박 전 대표에 10% 포인트 가량 앞서 나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진영이 지지율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전망을 내놓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이 전 시장은 추석 연휴와 북한 핵실험(10월9일) 파후 저지율이 30% 대로 급상승하며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도 추석 이전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대로 벌어졌다.

일례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성인남녀 1천28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시장은 34.5%의 지지율로 23.5%에 그친 박 전 대표에 11% 포인트대로 벌어졌다.

이 전 시장 측은 지지를 상승에 대해 '주석효과', '공약효과', '복핵효과'의 3박자가 맞아 펼쳐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전 시장 지지층이 추석 때 귀향, '이명박 선전'을 많이 한 데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등 세부 공약 제시를 통해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심어줬고,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위기관리 및 경영 능력이 부각돼 지지를 상승세가

근거로 이 전 시장이 박 전 대표의 표를 잠식한 것이 아니라 여당과 호남 표를 일시적으로 흡수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한때 10% 후반 대까지 빠졌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평균 2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자리멸렬'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이 전 시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당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이탈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측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표가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대선공약과 국가발전 비전 제시를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 지금의 불리한 흐름이 순식간에 호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경기자 jpark@kwangju.co.kr



5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열린 원불교 종법사 대사식(戴謝式·취임식)에 참석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임즈부지)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행사 도중 원구를 쳐다보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 "강남남자" 선정적...청와대 문화일보 절독

청와대가 지난 2일부터 '문화일보'를 절독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청와대가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연예소설 '강남남자'에 대해 내부 여직원들의 비판과 문제제기로 심각해 선임비서

지속됐다"며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문화일보'를 끊기로 했다"는 것이다.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소설 '강남남자'가 연재된 게 벌써 몇년인데 이제 와서 청와대가 '선정성' 시비로 절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근 청와대에 대한 비판 논조를 문제삼은 보복조치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지기자 dok2000@

보해양조  
www.bohae-yangjo.com  
www.bohae-yangjo.com

360ml  
20.1도

일새주

임새주세요

다 칠밀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자구요  
드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우연 걸으니까...  
당신을 위해 준비한거예요!

보해양조는 우리 고장의 술은 일새주를 등원합니다!  
보해양조는 우리 고장의 술은 일새주를 등원합니다!

비비풀 소주  
일새주